

## 1가구 2주택 ‘양도세 제외’...전남 솔라시도 주택분양 ‘청신호’

인구소멸지역 ‘영암·해남·태안’ 소재 기업도시에 특례적용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주택거래 시 보유가구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 부과 제외 지역에 전남도가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포함돼 주택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 강화 차원에서 기업

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까지 입

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화 진행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지역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급 예정이었던 구성지구 선도 주택단지 600가구 분양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전남도와 민간사업자가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주택분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시도는 골프를 비롯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외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성격으로 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솔라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보성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도와 함께 기업도시 내 부동산 세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솔라시도 내 주택분양과 정주인구 유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출가분” “시기상조”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광주시민 엇갈린 반응

“숨 쉬기 편해서 살 것 같아요.”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닌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된 30일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관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 중 대부분은 마스크를 코까지 바짝 올려 쓰고 있었다. 일행 간 대화를 자제하고 곳곳에 놓인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반면 또래들과 삼삼오오 여행에 나선 10~20대는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배모(20·여)씨는 “방역 지침 완화로 대부분의 실내에서 눈치 안 보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기쁘다.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한결 숨쉬기 편하고 화장 지워질 걱정도 덜 하다. 친구들과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추억이 될 사진도 많이 찍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여수로 향하는 이모(18)군은 “다

들 코로나19에 한 번씩 걸렸고 백신 접종도 모두 마쳐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며 “거주장소인 마스크를 여전히 들고 다녀야 하지만 여행을 보다 출가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이군 일행은 승차 시간이 임박하자, 외투 주머니에 넣어뒀거나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랐다.  
 중·장년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스크 착용을 깜빡 잊거나 간

1020세대 “불안하지 않다” 반색...중장년층은 “당분간 쓸 생각”  
 마트·백화점 대부분 착용...“눈치보여도 벗으니 편하다” 반응도  
 수영장·헬스장도 ‘각양각색’...의료·요양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식을 먹고 있던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표모(56·여)씨는 “정부 지침과 상관 없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아직 완전 종식된 것도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개인 단위로 당분간 조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모(73)씨는 “이제는 실내·외 어디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됐다”면서 “어디까지나 권고로 전환된 것 아니냐. 아직은 감염 위험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생각이다”고 했다.  
 대형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장을 보는 이용객들은 드물었다. 대부분 매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매장 간 엘리베이터 내에서 마스크를 바로 고쳐 썼다.  
 김모(50·여)씨는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감염 전파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마스크를 쓴다”며 “마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사무실 등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는 만큼 혹시나 내가 바이러스 옮길까 싶어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트 내에 있어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유지되는 2층 입점 약국 주변에는 ‘약국·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별도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마트 이용객 중 상당수는 취재진 질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풀렸다”, “마트에서

는 안 써도 되느냐?”며 바뀐 방역 지침을 알지 못했다.  
 비슷한 시간대 시내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쇼핑하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남성복 매장에서 셔츠를 고르던 이모(56·여)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 같아 기분이 좋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때처럼 처음엔 어색해도, 하나 둘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고 했다.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 불만 등을 우려해 쉽사리 벗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화장품 매장 직원 최모(33·여)씨는 “위생을 염려하는 고객들의 향의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본사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내 수영장에서는 회원 50여 명이 강습이 시작되자 일제히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센터 내 헬스장에서도 회원들이 저마다 운동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운동 끝에 거친 숨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왔지만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회원 3명 만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에 열중했다. 염모(65)씨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할 수 있어 편하다”며 “4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고 코로나19에 단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승호기자



전남도, 첫 실내 마스크 해제 업무보고회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첫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2023년 실적 업무보고(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학원·국제협력관실)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